



## ■ 연구원 주요일정

○ 09월 25일(月) : 주간회의

## ■ 연구원 소식

### ○ 호남고전문화연구원과 MOU체결

- 9월 19일(화)에 호남고전문화연구원(이사장 김성환)의 선종순 원장과 김기완 국장이 우리 연구원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주승 상임이사가 연구원이 진행중인 사업과 공간에 대해 설명하셨고, 이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양 기관은 공동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약속을 약속하였습니다.



○ **홍응호 회원 연구원 방문**

- 9월 21일에 전주대학교 디아스포라 강좌를 위해 오신 홍응호 회원이 우리 연구원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주승 상임이사과 이정욱 평의원이 연구원에서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 **전북의병사 실무자 회의**

- 9월 21일에 우리 연구원이 진행하는 “전북의 병사 사업”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작업진행상황에 대한 확인과 의문점 및 보완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시연(時緣)” 원고 및 표지사진 모집 안내 <상시 모집 중>**

- 2017년도 시연의 표지에 연구원 사무국에서 촬영한 사진이 아닌 회원의 손때가 묻은 사진을 사용하여 의미를 살리고자 합니다. 연구원 기관지 시연의 표지로 장식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사진이 있으시면 메일이든 우편이든 보내주십시오. 아울러 원고도 함께 모집(특정 주제없이 자유롭게 말하고 싶은 것으로)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선정되신 회원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디아스포라 강좌 안내”**

- 주 제 : 중국 조선족의 초국가적 이동과 민족정체성의 갈등 / 강 사 : 김광희(중국 연변대 교수)  
- 장 소 : 전주대학교 진리관 307호 / 시 간 : 2017년 9월 28일(목) 16시~18시  
: 디아스포라 강좌는 연구원과 협약기관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수강생은 제한이 없으므로 관심 있으신 회원께서는 오셔서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영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작자소개

두보(杜甫, 712-770). 자는 자미(子美)이고, 호는 소릉(少陵)이다.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 시성(詩聖)이라 불렸다. 이백(李白)과 병칭하여 이두(李杜)라고 일컫는다. 뛰어난 문장력과 사회상을 반영한 두보의 시는 후세에 시로 표현된 역사라는 뜻으로 '시사(詩史)'라 불리기도 했다. 소년 시절부터 시를 잘 지었으나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해 각지를 방랑하며 지냈고 그 과정에서 이백·고적(高適) 등과 교류(交遊)하였다. 그의 시는 사회 부정에 대한 격렬한 분노와 인간에 대한 한결같은 애정과 성의가 잘 나타나 있다.

### ■ 작 품

#### 解悶(第6首)

復憶襄陽孟浩然(부억양양맹호연)  
淸詩句句盡堪傳(청시구구진감전)  
卽今耆舊無新語(즉금기구무신어)  
漫釣槎頭縮項鱸(만조사두축항편)

#### 고민을 풀며(여섯째 수)

다시금 양양 살던 맹호연을 회억하면  
맑은 시들은 구절마다 모두 전할 만했는데,  
지금의 노인들은 참신한 구절 없이  
느긋하게 뗏목에서 방어만 낚고 있네

### ■ 감 상

두보는 「해민(解悶)」이란 제목의 연작시 가운데 여섯 번째 수에서, 맹호연을 위 시와 같이 회상하며 짙은 그리움을 담았다. 방어는 녹문산 근처의 한수에서 나오는 특산물이다. 그런데 이곳의 노인들은 맹호연처럼 세상에 널리 전해질만한 참신한 시구를 지어내기는커녕, 게을리 방어만 낚고 있다는 질타이다. 구절마다 늘 새로운 운치를 담았던 맹호연에게 지금은 더 이상 견줄만한 노시인이 없다는 아쉬움이기도 하다.

## ■ 역사속의 오늘

### ○ “국군의 날”이 된 날 - 1950년 10월 1일

10월 1일은 대한민국 국군의 날이다. 그런데 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일까?  
1950년 10월 1일 육군 3사단 예하 23연대 3대대 10중대 3소대 2번 기준병이 38도선을 최초로 넘어선 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육군 3사단은 백골부대라고 불린다. 1947년 부산에서 조선경비대 3여단으로 창설되었으며 1949년 5월 사단으로 승격되었다. 부대이름을 백골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은 저 유명자인 서북청년단원들이 사단 예하 18연대에 자진입대하며 죽어서라도 고향을 찾겠다며 철모에 백골을 그려 넣은 것에서 유래한다고 전해진다. 빅뱅의 탑과 차승원, 김승우가 주연한 영화 '포화 속으로'에서 김승우가 소속된 부대가 3사단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이 별나게 용맹하여 자랑스러운 선봉으로 38선을 '돌파'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들이 38도선을 넘어선 것에는 다음과 같은 뒷이야기가 있다.

서울 환도 기념식에서 만난 맥아더에게 이승만은 북진을 호소했으나 거절당했다. 한국전쟁 발발 19일 만에 남한의 군통수권자는 작전지휘의 일원화와 효율적 전쟁지도를 목적으로(라고 쓰고 자국의 군대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음을 인정함으로 읽기도 한다)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했다. 해군과 공군도 각각 극동 해·공군 구성군 사령관에게 이양했다. 사정이 이러하니 한국군이 마음대로 38선을 넘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 1950년 9월 29일 군 수뇌부 회의에서 이승만은 북진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다. 이에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일권은 "작전권이 UN군 사령관에게 있기 때문에 이중의 명령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UN의 결정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하며 이승만의 노기를 일으킨다. 그러나 뒤이어 "이건 군사적인 견해고, 각하께서 북진을 명하시면 복종하겠습니다." 이에 이승만은 노여움을 풀고 북진명령을 내린다.

이후 9월 30일 38선에 진출해 있던 육군 1군단장에게 정일권은 전화를 걸어 38선을 넘어서는데 아군이 미리 점령해야만 될 고지가 어디냐를 물었고 군단장은 3사단 주둔지 앞에 그런 고지가 있다고 답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과 일어나야만 될 일을 예측하는 선문답이었다.

이에 바람처럼 미 8군 사령부로 달려간 정일권은 미래형 질문과 답을 기초로 한 요청을 상신한다. “제3사단이 38선 바로 북방에서 적의 치열한 사격으로 큰 손실을 입고 있으니 부득이 고지를 점령하여야겠습니다.” 사령관 워커는 이를 승인했고 정일권은 강릉으로 날아가 이승만의 명령서를 들이민다.

이윽고 10월 1일 새벽 3사단은 38선을 ‘돌파’했다. 이미 넘어간 작전 지휘권을 거스르지도 않으면서 이승만의 자존심도 살리는 “꿈수”였다. 결국 이런 배경 속에 광복군 창건일도 아니고 국방 경비대 창건일도 아닌, 전지작전통제권이 있던 미군 사령관을 속이고 38선을 넘어간 날이 우리 국군 최대의 기념일이 되었다. 그것도 전쟁이 멈춘 지 3년이 지난 1956년 제정되었다.

지난 9월 17일은 한국광복군이 중국 충칭에서 창설된 지 77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한편 남조선국방조선경비대는 1946년 1월 15일 서울 태능에서 창설되었고 같은해 5월 1일 남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가 설립되었고 6월 조선경비대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가 수립된 뒤 1948년 9월 1일 국방부 산하로 편입된 조선경비대는 9월 5일 대한민국 육군이 되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올해도 어김없이 10월 1일을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행사”라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다.

혹자는 이미 제정된 지 61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국군의 날을 다시 제정하자는 것은 중복에 다름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제라도 “자주국방”이라는 표어에 맞게 국군의 날을 새롭게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구말마따나 없는 일도 만들어질 수 있는 세월이 60년이다. 그 신산스런 세월동안 유지되어 온 국군의 날에 대해 또 다른 논쟁을 더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전쟁의 포화가 멈춘 지 64년이 흐른 오늘에서도 “꿈수”를 써서 북진해야했던 1950년 10월 1일과 별 다른 없는 “자주국방”의 공허한 메아리가 가슴을 친다. 다만 우리 국군이 “국군의 날”의 유래보다는 더 당당해지기를 바란다. 37년 전 우리나라 시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밀었던 과거를 반성하고 진정한 “자주국방”의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 어서 오길 고대해본다.



## ■ 도농상생

###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마스크팩”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 ◎ 효 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25g \* 5매 >

- ◇ 시 중 가 : 1만 5천 원
- ◇ 연구원 판매가 : 1만 원



< 30g \* 5매 >

- ◇ 시 중 가 : 4만 5천 원
- ◇ 연구원 판매가 : 2만 원

◎ 마스크팩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